

'09년 7월 25일 시행 국가직 7급 영어시험 문제해설

빛과소금 영어학교 강수정

1 문법> 중, (공통영어 chapter 13 분사구문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 일치)

정답 : ①

Founded는 '설립되어'를 뜻하는 수동형 분사구문이다. 따라서 주어는 '설립된' OPEC이어야 한다. 분사구문의 마무리를 뜻하는 쉼표 뒤에 주절을 썼는데, 빈칸 뒤에는 동사가 따로 없으므로 빈칸에는 주절의 주어와 동사를 써야한다.

2. 문법> 고, (공통영어 chapter 13 with로 시작하는 부대상황)

정답 : ④

Carefully produced는 '조심스럽게 제작되면'을 뜻하는 수동형 분사구문이다. 주절의 주어는 a newsletter이므로 빈칸에는 콤마와 콤마로 삽입된 내용을 써야한다. 'with 명사 서술부'는 '명사가 서술부인 상황에서'라는 말로 동반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접촉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을 명심한 상황에서'라는 말이 적당하다. (1)의 contacting은 '접촉된'이라는 말이 필요하므로 contacted가 되어야 한다. (2)의 등위접속사가 필요하지 않다. (3) contact가 those를 설명하는 형태가 아니다.

3. 어휘> 중

정답 : ④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같은 뜻이다. 두 번째 쓰인 간단한 문장을 보면, 수상이 referendums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빈칸에는 긍정적인 의미의 동사가 필요하다. conflict 갈등이 있다, comprise 구성하다, convolve, countenance 묵과하다 (ten=hold)

4. 어휘> 중

정답 : ①

역접을 의미하는 although가 중심을 잡아준다. 앞에는 celebrate가 나왔으므로, 뒤에는 disgraceful incidents와 어울리는 부정적인 어휘가 필요하다. tarnished 더럽혀진, respected 존경받는, peculated, indulged 폭 빠진, 골몰한

5. 이디엄> 중 (이디엄회화특강 80쪽)

정답 : ③

make은 '만들다', do는 '하다', with는 '가지고'를 뜻하므로 어렵지만 그럭저럭 무엇을 가지고 해본다는 긍정적인 의미의 표현일 수밖에 없다. come up with 생각을 떠올리다(같은 책 표제어 90번), repair 수리하다, manage with sth ~을 가지고 간신히 버티다, remove 제거하다(PW)

6. 독해> 중, 중단문 리딩> 독해의 기술> 주제찾기

정답 : ②

첫 문장에서 competition은 윤리적이거나 때(ethically) 변호될만하고 긍정적이라고 말했으므로, 주제는 경쟁은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의 demerit(결점), (3)의 method, (4)의 side effect(부작용) 등이 주제와 상관없다.

7. 독해> 하, **중단문 리딩**> 독해의 기술> 주제찾기

정답 : ①

배경설명 후에 의문문으로 주제를 밝힌 전형적인 제시문이다. 첫 문장에 different kinds와 live in different climates만 잘 읽어도, 다양한 거미들이 그렇게 다양한 기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주제임은 드러난다. 게다가 의문문과 정답에서 매우 확실히 주제를 보였으므로 길이에 상관없이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지문이다.

8. 문법> 상, **공통영어**> chapter 3 대명사 it의 다양한 쓰임, chapter 4 시제, chapter 5 동사의 패턴(teach sb (not) to do sth), chapter 8 전치사 despite, chapter 9 수동태

정답 : ③

(1) 가목적어 it 뒤에 for sb toV를 써서 적절히 진목적어를 밝혔다. register for ~에 등록하다.

(2)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은 현재완료시제가 적당하다. teach는 ‘누구에게 ~을 하라고 가르치다’라는 시킴의 동사이므로 teach sb toV 패턴을 쓰는데, ‘하지 말라고’ 가르쳤으므로 not toV가 옳다.

(3) despite sth과 in spite of sth을 구분하자.

(4) tell sb toV를 수동태로 만들면 be told toV가 된다. watch out 조심하다

9. 문법> 상, **공통영어**> chapter 5 사역동사의 패턴, chapter 3 가주어 it, chapter 8 전치사의 의미

정답 : ②

(1) work은 ‘효과를 발휘하다’를 뜻한다. had 뒤에 사람과 사람이 할 일을 쓴 전형적인 사역동사의 예이다. after는 ‘~의 뒤에’라는 공간적 의미로부터 ‘~를 따라하다’를 의미한다.

(2) dispense는 PW 55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듯이, ‘~을 (나누어 주어) 없애다’를 뜻한다. dispense 자체에 분배(dis=apart)의 개념이 있으므로 without이 아니라 with를 써야한다.

(3) through는 **이디엄회화특강** 48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듯이 과정을 관통하여 어디에 도착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흔히 ‘전화를 바꿔 주어 연락하다’를 put sb through to sb로 표현하는데, put 대신 get을 써도 공간 이동을 잘 표현할 수 있다.

(4) from now on은 ‘지금부터 계속’을 뜻한다.

10. 문법> 상, **공통영어**> chapter 10 준동사, chapter 8 전치사, chapter 15 강조의 방법

정답 : ②

(1) teach sb how to do sth 구조가 정확하다. 나이를 말할 때는 전치사 at을 쓴다.

(2) 복면한 강도는 masked robbers이다. ‘쳐들어 왔다’는 break in/into이다(이디엄회화특강 52번 표제어). break off는 갑자기 말을 중단하다, 관계를 끝내다, 부러져서 떨어지다 등을 뜻한다. run away with sth은 ~을 가지고 도망치다.

(3) fail은 toV나 in sth을 써서 무엇에 실패했는지 밝힌다. fail 뒤에 in을 쓰는 것은 반대말인 succeed 뒤에 in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 성공이나 실패했는지’를 말한다. take control of sth ~을 지배하다

(4) 동사 앞에 do를 써서 동사를 강조한다.

11. 이디엄과 회화> 중, **이디엄 회화특강** 69번 표제어 pick on sb

정답 : ③

A는 have a bone to pick with sb (같은 책 180 페이지)라는 말로 존슨씨의 악감을 전했다. B는 그는 항상 beef about한다고 했는데, 이 표현을 몰라도 have a bone to pick with sb와 비슷한 내용임은 분명하다(beef about 불평하다). A가 너는 그의 애완동물이야. 그는 너를 갖고 놀아. 라고 말했으므로 분노한 B는 뭐라 했겠는가? (1)의 eat는 beef를 쇠고기로 해석한 사람들을 위한 선택항이고, (2)의 feeding his dog은 pet을 애완동물로 해석한 사람들을 위한 선택항이다. 이디엄 문제는 글자 그대로(literal)의 뜻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새롭게 해석된 뜻을 찾아야 한다. (3)의 pick on sb는 get on sb (같은 책 82번 표제어)와 마찬가지로 계속 괴롭히다를 뜻하므로 적당하다. (4)의 be in touch with sb는 ‘연락하다’인데, 본문과 상관없다.

12. 회화> 중

정답 : ②

A가 B의 가방을 검사하는 상황이므로 A는 보안요원이고 B는 alarm을 울린 가방을 든 손님이다. 빈칸 앞에서 B는 choker만 샀다고 했고, 뒤에 B가 ‘여기 있습니다(here it is)’라고 했으므로, 가방 속에서 choker를 확인한 A는 영수증을 보자고 했을 것이다. (1)의 요점은 ‘점원이 누구인가’, (3)의 요점은 ‘어디서 샀는가’, (4)의 요점은 보안 택을 더 갖고 있는가? 인데, (1)과 (3)은 here it is와 어울리지 않고, (4)는 뒤에 이어지는 A의 말로 보아 답이 아니다.

13. 독해> 주제> 중, **중단문 리딩**> 독해의 기술> 주제찾기

정답 : ①

첫 문장에서 key word는 cloning, not only one type이다. 언론은 단지 하나의 유형만 말하지만, 사실 cloning에는 여러 가지 type들이 있다는 것이다. 주제는 different types of cloning, however,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2)의 history, (3)의 legalization(합법화), (4)의 public issues 등이 답이 아니다.

14. 독해> 주제관련 빈칸 완성> 중, **중단문 리딩**> 독해의 기술> 주제관련 빈칸 완성

정답 : ④

전형적인 반박문으로 첫 문장에서는 ‘피가 물보다 진하다지만...’이라고 말함으로써, 주제는 혈연관계보다 의미있는 비혈연관계임을 드러냈다. 마지막 문장에서 they는 ‘비혈연관계’의 친구나 이웃이고, 가족이 곁에 없을 때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므로, ‘이용가능하지 않은’이 적당하다. available은 사람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쓰이는 말이다(I'm available this afternoon. 오후에 시간 있어.)

15. 문법> 중, **공통영어**> chapter 3 주어와 동사의 수 일치

정답 : ③

(1) 보어는 toV나 Ving형을 가질 수 있다. arrive는 자동사이므로 전치사가 필요하다. (2) 이해를 뜻하는 understanding과 '~에 대하여'를 뜻하는 of는 좋은 짝이다. (3) that절의 주어가 matter이므로 동사는 단수주어에 맞게 does여야 한다. do justice to sth ~을 정당하게 대우하다, (4) 부사인 enormously는 형용사인 useful을 수식하고, 형용사는 명사 enterprise를 적절하게 수식했다. 수식어에 의해 구체화 됐으므로 부정관사 an이 명사를 한정해 주어야 한다.

16. 문법> 상, **공통영어**> chapter 14 가정법, chapter 5 조동사, chapter 12 명사절을 시작하는 접속사 whether, chapter 7 비교, chapter 3 대명사 those

정답 : ④

(1)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had, should, were 중 하나가 주어 앞으로 나간다. 이 문장은 과거와 다른 내용을 상상하는 전형적인 가정법 과거완료 시제를 갖고 있다.
(2) 주어인 the head 다음에 조동사 be likely to를 적절히 사용했다.
(3) but 뒤에 '~인지 아닌지'를 뜻하는 whether가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적절히 시작한다. protect sb from sth의 구조가 정확하다. another 뒤에 단수명사를 써서 '다른 (other=different) 문제'를 적절히 표현했다.
(4) 그의 예측들(forecasts)과 다른 분석가들의 예측들을 비교하고 있으므로 복수명사를 대신하는 those를 써야한다.

17. 독해> 의미에 맞는 어휘 쓰기> 하, **중단문 리딩**> 독해의 기술> 주제에 맞는 어휘

정답 : ③

문단의 주제는 cattle을 위해 grass가 필요하다는 말 속에 숨어 있다. 소는 풀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 그 뒤에 도시의 소음이나 휴대 전화 같은 번잡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ample (PW)은 풍부한, clamor (PW)는 소란, scanty는 적은(PW), serenity는 고요함(PW)을 뜻한다.

18. 독해> 의미에 맞는 어휘 쓰기> 중, **중단문 리딩**> 독해의 기술> 주제에 맞는 어휘

정답 : ②

인류학적 텍스트로 transform (PW) A into B의 구조를 써서 돌로 도구를 만들었다고 했다. 도구는 implement (PW). 두 번째 빈칸에는 이렇게 도구를 만들어 쓴 인간의 독보적 다재다능함을 말하므로 versatile (PW)이 적당하다.

19. 독해> 특정 정보 찾기> 중, **중단문 리딩**> 독해의 기술> 특정 정보 찾기

정답 : ②

오바마의 부시 정권에 대한 평가를 알아야 하는데, 두 번째 줄의 repudiation에 정보가 있다. 이 단어는 매우 어렵지만, re-라는 접두어가 back, again, against를 뜻한다는 것을 활용하면 '부정적'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a vow to drive the U.S. into "a new age"라는 말로 봐도 '과거 청산'이 연설의 주제임은 드러난다.

20. 독해> 세부사항> 중, 중단문 리딩> 독해의 기술> 세부사항

정답 : ③

with Mr. Bush and Dick Cheney sitting feet from him이라는 부분에서, 취임 연설 상황에 두 사람이 참석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as he described the false turns 등에서 연설문의 내용은 과거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도 확실해 진다. 따옴표로 강조된 'our collective failure to make hard choices'에서 과거 정부가 손쉬운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한 것이 드러난다. (1)의 체니의 참석은 옳고, (2) easy choices가 옳다, (3) 이념보다 과학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왔다면 칭찬할 일인데, 오바마는 비판 일색이므로 이 진술은 틀리다. (4) 오바마의 기본 가치가 실용주의라는 것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말에 어울리는 진술이다. 확인이 필요하면 본문을 읽는다.